

■ 초콜로와 사탕 - 페루의 툼베스 여행(1)

이 호 인

“이유가 무엇이든, 페루에 왔으면 진짜 페루를 느껴봐.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부 관광지의 페루만 보고 간다면, 2주일 간 페루 여행하고 가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니?”

페루 북부로 출발

“페루 북부? 갑자기 왜? 거기 뭐가 있는데?”

별안간 페루 북부로 여행을 떠나겠다는 나의 말에 친구들은 모두 황당한 표정이었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이제 페루에서 대표적인 관광지는 다 보았으니 칠레로 여행을 떠날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나였으니, 친구들의 반응은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페루로 떠나오기 전부터,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을 포함한 남미일주를 하고 싶다는 말을 몇몇이나 하던 나를 아는 한 친구는 살며시 내 옆으로 다가와 혹시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냐고 묻기도 하였다.

내가 이렇게 여행 계획을 완전히 바꾸게 된 데는 리마대학교에서 경제학 수업을 같이 듣는 아우구스토라는 친구의 영향이 컸다. 지난 주말 나는 아우구스토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나는 지난 번 페루 남부의 유명관광지를 여행한 이야기며, 앞으로 칠레를 여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아우구스토가 물었다.

“그런데, 넌 왜 교환학생을 페루로 왔니?”

스페인어를 배울 거면 칠레나 멕시코와 같은 곳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페루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 단순히 칠레보다는 페루가 동양인에게 더 우호적이라는 친구들의 말과, 페루의 리마대학교가



더욱 역사가 오래된 학교라는 점 이외에 내가 페루행을 결심하게 된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대답을 못하고 어색하게 웃고만 있던 내게 아우구스토가 말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페루에 왔으면 진짜 페루를 느껴봐. 세계적으로 유명한 남부 관광지의 페루만 보고 간다면, 2주일 간 페루 여행하고 가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니?”

어쩌면 단지 아우구스토 본인이 페루 최북부 도시, 툼베스 출신이기 때문에, 페루 남부 여행한 것을 마치 페루 전체를 다 보았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내 말이 거슬렸을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내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 놓았다. 그동안 내가 페루 남부를 여행하면서 느낀 것은 조금 비약해보면 우글거리는 백인 관광객들 틈에서 마추픽추를 포함한 유명관광지를 보고 탄성을 자아내던 것이 거의 전부였다. 이게 내가 페루를 느끼고 여행한 것일까? 내가 칠레로 여행하고 자 한 것은 정말 칠레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유명 관광지를 보고 내가 거기 갔었다는 표식을 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것일까. 한국의 13배가 넘는 땅덩이를 가지고 있는 페루의 곳곳을 진정으로 느껴보지도 못한 채 남미 각 나

라의 유명관광지를 여행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저 사람들이 모두 아는 유명하다고 하는 관광지에 나도 가보았다는 자부심을 느껴보고 싶고, 누군가에게 나의 유명 여행지 여행을 뽐내고 싶었을 뿐이진 않을까?

몇 날을 고심 후, 난 페루 최북부 도시 툼베스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꼭 아우구스토의 말 때문은 아니었지만, 이제 유명 관광지에서 내 얼굴이 박힌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진짜 이 낯선 땅을 한번 온 몸으로 느끼는 여행을 해 보고 싶었다.

‘이 여행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멋진 사진을 못 찍어도 좋다. 체게바라처럼 가슴속에 큰 뜻을 품을 만한 깨달음이 있는 여행이 아니어도 좋다. 그저 이 페루를 정말로 한번 느껴보고 올란다.’

툼베스 중앙광장

툼베스에 도착하여 바로 아우구스토의 형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아우구스토가 툼베스에 가면 꼭 자기 집에 연락하라고 몇 번이고 말했었기 때문이다. 전화로 아우구스토의 한국인 친구라고 하자, 이미 들었다면서 몇 분 내로 나를 데리러 시내로 나오겠다고 했다. 중남미에서 그 ‘몇 분 내에’ 라는 시간은, 내가 시내 한 바퀴 돌아보고 박물관 하나 정도까진 구경하고 나와도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바로 중앙광장으로 향했다. 중앙광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마치 아랍의 어느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랍 냄새가 강하게 풍기는 대성당이였다. 외관과 색감이 모두 아랍을 떠올리게 하는 대성당은 나에게 정말 새로운 것이였다.



툼베스 중앙광장에 위치한 대성당의 모습

물론 수도 리마에도 아랍의 영향을 받은 바로크식 건물이나, 아랍 양식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는 교회가 몇몇 있었으나, 이토록 겉 외관부터 확연히 아랍풍의 느낌을 자아내는 성당은 본 적이 없었다.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던 라틴아메리카의 한 도시에 아랍 양식의 대성당이 있을 정도면, 과거 스페인과 아랍의 관계는 내가 생각했던 단순한 지배와 축출의 관계가 아닌, 상호 연관성이 훨씬 더 밀접했던 관계이지 않았을까…….

대성당을 구경하고 광장주위 강과 맞닿아 있는 말레콘(Malecon)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로 가보았다. 훌쩍 벗은 연인이 키스하는 동상이 버젓이 있는 이곳에는 밤만 되면 수많은 연인들이 연애하는 주요 장소란다. 한국이었으면 퇴폐적인 동상이라며 주민들이 항의하고 난리가 났을 별거벗은 연인의



툼베스 말레콘에 위치한 벌거벗은 연인의 키스하는 모습의 동상

키스하는 동상은 아주 보란 듯이 크게도 만들어져 있었다. 이 동상을 보고 열정적인 사랑 한번 나눠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하나의 동상이 어떤 곳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동상일 수 있지만, 이 곳 페루에서는 그냥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사랑, 행복함과 열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주는 멋진 동상이다.

다시 중앙광장으로 돌아갈 때 쯤 아우구스토의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제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30분 내로는 출발한다는 뜻이렸다.’ 광장을 조금 더 둘러보기로 했다.

광장을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표지판을 하나 발견했다. 그 표지판 속에 낫설지 않는 국기, 즉 태극기가 있었던 것이다. 눈이 휘둥그레 해져서 부리나케 그 푯말 앞으로 달려가 봤더니 한국 국기와 이 지역을 상징하는 마크가 함께 푯말에 새겨져 있었다.



툼베스 중앙광장에 위치한 한국 국기가 새겨진 안내 표지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툼베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KOICA단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세계 곳곳에 한국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는 것 같아 상당히 뿌듯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국기와 페루의 국기가 아닌, 지역 상징마크가 새겨진 것을 보니 뭔가 급이 안 맞는 두 개의 상징이 함께 표시된 것 아닌가 하는 괜한 투덜거림도 나왔다.

잠시 광장 근처에서 앉아서 쉬기 위해 어느 현지인 아주머니와 아이가 앉아있는 벤치에 가서 앉았다. 아이는 낯선 생김새의 나를 보자마자 호기심에 가득찬 눈으로 응시하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뭔가 말을 걸어볼 요량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난 한국인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이 뭔지도 모르면서 마냥 웃는 아이모습에 아주머니도 나도 함께 미소를 지었다.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계속

장난을 걸고 있는데, 조금 후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초클로(Choclo) 옥수수였다.¹⁾



툼베스 중앙광장에서 만난 한 현지인 아주머니와 너무 귀여운 여자아이

아이는 엄마가 초클로를 꺼내서 나에게 주려하자 싫다며 땡깡을 피워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아이에게 한국 사탕을 하나 건네주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사탕하나에 너무나 해맑게 웃어 주었다. 낯선 이에게 먼저 따뜻하게 초클로를 건네주시는 아주머니와 사탕 하나에 세상 모든 걸 얻은 듯한 미소를 짓는 아이의 모습이 내 온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었다.

혹자는 다소 허름한 옷차림의 어려워 보이는 중남미 사람들을 보면 그 순간 감상에 빠져 마냥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자신보다 훨씬 여유 있을 것이 분명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초클로를 먼저 건넬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여유와 사탕 하나에 이토록 행복한 웃음을 짓는 아이의 삶을 무척 대고 안타깝게 생각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너무나 순박해 보이는 이들의 삶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자리를 일어섰다.□

이호인 -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재학

1) 초클로는 우리 옥수수보다 알이 훨씬 더 굵은 페루 옥수수이다.